

나는 신앙인인가, 종교인인가

## 환자에서 제자로

본문 · 마태복음 9:9~13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살아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통과 습관만 남아 있는 사람입니까?

### 1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과 종교인

세리 마태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마태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반면 부자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을 붙들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입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모습이나 종교적 행위만으로는 참된 신앙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입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까?

### 2 신앙인 vs 종교인 체크리스트 8가지

|                                                                                                   |                                                                         |
|---------------------------------------------------------------------------------------------------|-------------------------------------------------------------------------|
| <b>2-1 말씀을 들을 때</b><br>신앙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말씀의 잣대를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바로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 종교인 말씀을 들으며 다른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데.” 자신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
| <b>2-2 말씀에 순종할 때</b><br>신앙인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 종교인 자기 힘으로 순종하려고 합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
| <b>2-3 말씀을 어겼을 때</b><br>신앙인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회개합니다.          | 종교인 자기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
| <b>2-4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길 때</b><br>신앙인 즉시 회개합니다. “주님, 제 안에 이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 종교인 자기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직접 복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
| <b>2-5 교회에서 죄에 빠진 지체를 만날 때</b><br>신앙인 교회를 죄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넘어진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도우려고 합니다.       | 종교인 교회를 의인들의 모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정죄하고 내쫓으려고 합니다.                        |
| <b>2-6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b><br>신앙인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욱 겸손해집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 종교인 점점 교만해집니다. 사람과 방법론만 남고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
| <b>2-7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b><br>신앙인 구원신앙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구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 종교인 자기 기준과 다르면 모두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합니다.                |
| <b>2-8 비난을 받을 때</b><br>신앙인 예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습니다. 용서하고 기도합니다.                                        | 종교인 두 배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성경으로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